



골...광주FC 최다승 저지

또 골...전남 5연패 탈출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의 이종호(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도움을 기록한 스테보와 환호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광양 루니’ 이종호 원맨쇼

K리그 클래식 ‘엘로더비’ 최종전 전남 2-1 승...광주FC 10승 불발



‘광양루니’ 이종호(전남)가 팀의 연패를 끊어내면서 광주의 최다승을 저지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이종호의 활약 속에 2-1 승리를 거뒀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전남은 5연패의 늪에서 탈출하며 활짝 웃었다. 광주전 9경기 연속 무승 사슬도 끊었다.

팀 최다승(10승)을 노렸던 광주는 이종호를 막지 못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주인공이 된 이종호에게는 광주전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지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종호는 남북대결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군면제의 혜택을 얻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는 대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떠난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종호는 공격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위기의 팀을 구해냈다. 이종호가 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안용우가 올린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종호는 중형무진 빠르게 그라운드를

뛰어나며 기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41분 스테보로부터 넘어온 공을 원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2-0을 만들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승성범을 대신해 오도현을 넘으면 경험과 재능을 강화했다. 전남도 안용우를 빼고 이슬찬을 넣으며 측면 공격에 힘을 더했다. 연패 탈출을 향한 전남과 최다승을 향한 광주 선수들의 움직임은 뜨거웠다.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되면서 이날 9명의 선수에게 경고카드가 주어졌다. 후반 34분 광주 남기일 감독이 파비오를 빼고 신인 박선홍을 넣으며 분위기를 반전에 나섰다. 그리고 3분 만에 광주가 득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박선홍의 패스를 받은 임선영이 골대를 향해 공을 띄웠다. 포물선을

그리며 느리게 날아가던 공은 그대로 전남 골대로 들어가면서 득점이 기록됐다. 그러나 남은 시간 추가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남과 광주의 시즌 마지막 ‘엘로더비’는 전남의 2-1 승리로 끝이 났다. 이종호는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골을 넣고 팀의 승리를 이끌어서 더 기쁘다. 아쉽게도 마지막 경기를 지쳤다. 남아있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잘 해서 올 시즌 잘 마무리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신인들을 경기장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부상 선수들 잘 준비해서 최다승을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EPL 100번째 출장... 팀은 패배

기성용이 풀타임을 뒀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가 노리치시티에 패했다. 스완지시티는 8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2015-2016 리그 12라운드 노리치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졌다. 2012-2013시즌 EPL에 입성, 스완지시티와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고 뒀던 기성용은 이날 EPL 100번째 출장 기록을 세웠다. 이번 시즌 리그 10번째 경기에서 나선 기성용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며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했지만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기성용으로서의 후반 23분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 드리블 질주 후 날린 슈팅이 살짝 골대 위를 넘어간 것이 아쉬운 장면이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전 볼 점유율에서 71대 29로 앞섰지만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고 양팀은 전반전 각각 슈팅 3개씩을 주고받은 데 그쳤다. 후반들어 노리치시티에 몇차례 슈팅을 허용한 스완지시티는 결국 후반 25분 노리치시티 조니 하우선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하우선은 코너킥 상황에서 몸보카니가 머리로 떨어뜨려준 공을 그대로 헤딩, 골을 성공시켰다. /연합뉴스



직전 아스널전에서 0-3 패배를 당했던 스완지시티는 이날 노리치시티에 지면서 2연패에 빠졌다. 반면 노리치시티는 리그 4연패의 부진을 끊고 승점 3점을 쟁겼다.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의 김진수는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은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

최강희 감독 통산 4번째 우승...K리그 새 역사

전북 현대, 클래식 우승 확정 ‘강희 대체’ 최강희(56) 감독이 프로축구 새 역사를 썼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현대는 8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이재성의 골로 1-0으로 이겨 올해 프로축구 패권을 차지했다. 이날 승리로 22승6무8패, 승점 72를 기록한 전북은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올해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강희 감독은 2009년과 2011년, 201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프로축구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프로축구에서 네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지도자는 최 감독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까지는 최 감독과 함께 박종환(1993~1995년), 차경복(2001년~2003년·이상 성남) 감독이 세 번 우승했다. 최 감독은 현역 시절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1988년 서울을 립픽,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한 경력이 있다. 1995년 수원 삼성의 트레이너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최 감독은 2001년까지 수원 코치를 역임했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 코치를 맡았다. 2005년 처음 전북 지휘봉을 잡아



2011년까지 팀을 이끌었고 이후 잠시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해 우리나라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최 감독은 2013년 하반기부터 다시 전북 감독을 맡았다. 2006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최 감독은 2009년 K리그에서 처음 우승하며 ‘성공 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과 2011년 K리그를 제패하면서는 골 득실 차이가 30점 안팎이 될 정도의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웠고 그에 따라 전북의 축구에는 ‘다공(타치고 공격을 즐긴다)’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도 전북은 61골을 넣고 실점은 22골로 막아내는 공수의 조화를 통해 세 번째 우승을 일궈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권경원이, 시즌 도중에는 에두-에닝요 등이 잇따라 팀을 떠나자 ‘이기는 축구’로 변신, 골 득실차가 지난해(39골)에 비해 많이 줄어든 18골에 그쳤으나 선두를 지키며 정상까지 내달렸다. /연합뉴스

박병호 ML 포스팅 응찰액 146억원 ‘대박’

美 언론 “강정호가 일등공신”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KBO산 1호 야수’다. 강정호의 성공이 메이저리그의 눈을 한국으로 돌렸다.” 미국 CBS스포츠가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최고응찰액(1285만 달러) 수용 사실을 전하면서 강정호의 활약이 박병호의 순조로운 메이저리그 진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CBS스포츠는 8일(한국시간) ‘알려지지 않은(unknown) 구단이 1285만 달러에 박병호 영입권을 얻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병호와 함께 넥센에 몸담았던 강정호는 지금까지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성공한 한국의 유일한 야수”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강정호는 올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니, 나는 타자 쪽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길을 만드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정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때까지 올 시즌 메이저리그 126경기에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의 좋은 성적을 남겼다. CBS스포츠는 박병호의 올 시즌 성적(타율 0.343 53홈런 146타점)과 함께 주전 선수가 된 2012년 이래 매년 30개 이

상의 홈런을 쳤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전문가는 박병호가 KBO 역사상 최고의 타자라고 평가했다”면서 “적어도 박병호의 ‘배트 플립’이 A플러스급인 것은 분명하다”며 박병호가 홈런 후 방망이를 내던지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한국에서 배트 플립은 타자가 홈런 후 자연스레 취하는 행동이지만, 미국에서는 상대팀에게 모욕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야구계는 한국 타자들이 자국 리그에서 하는 배트 플립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편 박병호가 제시 받은 1285만 달러는 역대 포스팅시스템에 참가한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투수까지 포함하면 류현진의 2573만 7737달러 33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지난해 강정호가 포스팅에 받은 금액인 500만 2015달러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아울러 포스팅 금액 1285만 달러는 역대 아시아 타자 2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1위는 일본의 타격기계 스키지 이치로(42·마이애미 말린스)다. 이치로는 2000년 말 일본 야수 중 최초로 포스팅을 신청했고 1312만5000 달러를 제시한 시애틀 매리너스가 독점교섭권을 얻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윤아현, 亞 청소년 핀수영 3관왕

표면 200·400·800m 우승 장예솔 여자일본부 3관왕



윤아현 장예솔

광주체고 2학년 윤아현이 아시아 청소년대회 핀수영 3관왕에 오르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장예솔도 아시아선수권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재확인했다. 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윤아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 15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및 제 3회 아시아청소년핀수영대회’에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처럼 생긴 모노핀이나 오리발 같은 바이핀을 신고 수영장에서 규정된 거리를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경쟁하는 종목이다. 윤아현은 아시아청소년핀수영대회 표면 400m에 출전, 3분24초 08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표면 200m(1분 35초 66), 표면 800m(7분 07초 42)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점을 찍었다. 동년 광주체고 2학년 백서현도 표면 400m(3위)에 올랐다. 윤아현·백서현은 또 계영 단체(800m)에도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2위에 올랐다. 윤아현의 경우 제 9회 전국체전에서 도 핀수영 표면 800(은메달)·표면 400m(동메달)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여줬

다. 고등학생이 일반부 선수들과 함께 겨루는 전국체전 핀수영에서 메달을 확보한데다, 본격적인 핀수영 훈련에 들어간 지 2년만에 이런 성과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예상됐던 선수로 평가됐다. 이치현 광주체고 감독은 “아현이는 전국체전 이후 아시아청소년 선수권까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괄목할만한 스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여자 핀수영의 간판’ 장예솔도 이날 끝난 제 15회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 여자일본부 표면 100m에서 39초 01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한 것을 비롯, 표면 50m(17초 32), 잠영 50m(15초 88)에서도 가장 먼저 골인에 3관왕을 차지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콜핑여자씨름단 임수정·양윤서 대통령배 우승

국내 첫 여자 실업씨름단인 콜핑여자씨름단 임수정과 양윤서가 ‘대통령배 2015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을 차지했다. 콜핑여자씨름단은 지난 7일 구미시 구미선산체육관에서 끝난 대통령배 대회 국화급(70kg 이하)에 임수정이, 매화급(60kg 이하)에 양윤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수정과 양윤서는 올해 황성환우배 전국여자장사씨름대회와 국민생활체육 대전하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이번 대통령배에 우승을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임수정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구례군청의 박선을 상대로 4번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둬 4년 연속 천하장사에 올랐다. 국내 첫 여자 실업씨름단을 후원하고



임수정 양윤서

있는 박만영 콜핑 회장은 “지자체 씨름단 해체위기로 실업팀을 창단했다. 두 선수가 콜핑선수단의 이름으로 우승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선수가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